



高 銀씨의 강의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 수강생들.

독자(대중)와 저자(지식인)의 지속적인 만남이 책을 만들어냈다. 한길사에서 나오는 한길역사강좌시리즈가 그것이다. 86년 2월에 그 첫권이 나왔고 지금까지 모두 6권이 나왔다. 이 시리즈는 85년 7월 24일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 열리고있는 한길역사강좌의 體現으로 각 期에 행해진 강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길역사강좌는 한길역사기행과 동시에 추진된 프로그램으로서 역사 속에서의 이 시대의 의미, 전환기에 놓인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취지를 갖고 시작됐다. 함께 공부하고 나서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 봄으로써 현장학습과 이론학습의 통합을 꾀하고자 했다. 머리모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공부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역사의식의 대중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저자가 직접 독자들을 만나 쉬운 언어로 얘기한다. 아무리 어려운 테마라도 강의로 풀면 쉬워지고, 그동안 너무 한정적이었던 사회과학서적 독자를 늘릴 수 있어 넓은 의미의 사회교육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강좌의 내용이 개설서 수준이어서 20~30대 교사·회사원·은행원·자연계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온다. 보통은 1~3기의 강좌를 계속 듣는데 1기부터 계속 듣는 사람도 간혹 있다. 가정주부인 尹文姬씨(49세·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23동 801호)도 그런 사람중의 하나다. 신문에 난 걸 보고 참가하기 시작했던 尹씨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나의 생각이 현실감이 없이 고집만 있는 것 같아 새로운 사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라고 얘기한다. 역사기행도 17번이나 참여했던 尹씨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이 「역사」와 연결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인다.

소모적이지만 한 일상생활의 틀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자하는 사람들도 많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에다 접하는 것이라곤 편향된 시각의 매스컴밖에 없어 시야도 좁아지고 균형된 시각을 가지기가 힘든 현실때문이다. 그간 이 강좌엔 연평균 550~600명이 수강했고, 그동안 70여회의 강좌를 열었으며 50여명의 강사진을 동원했다.

강좌의 주제, 즉 이 시리즈의 주제들은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역사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보는 일정한 틀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할 때는 강사에게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서 부탁하고, 수강자들에게 강의안·강의요지를 미리 배부하며, 每期 강의첫날, 관계서적목록을 나눠준다. 한 期의 강좌가 끝난 뒤 책으로 다시 읽으면 더욱 이해가 깊어지고 참인식으로 肉化된다. 강좌를 열어 강의와 토론을 한다는 것은 독자가 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이고, 이를 다시 책으로 만든다는 것은 聽者(독자)를 더욱 늘린다는 의미이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독자의 반응도 수렴시킨다. 그런데 강사와 주제가 일정한 틀이 있는만큼 약간 편향된 감이 없지않다. 작년중반부터 다니기 시작한 金聖勳씨(31세·쌍용컴퓨터 FA사업부)는 「일반매체나 다른 강좌들에서 얻기 힘든 내용들이어서 좋다. 그러나 보다 균형된 주제와 전반적인 역사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 바로 이런 참석자들의 의견을 걸러서 책에 싣기 때문에 강좌에서 빠진 부분이나 보충해야할 것들이 책에는 담겨있다.

1권은 한길사편집인들이 녹음을 풀어서 만들었다. 강의가 진행되다로 실었기 때문에 뒤에는 참석자의 질문과 강사의 답변도 실려있다. 그런데 2권부터는 강사에게 책을 만들기 위한 원고를 다시 부탁했다. 질문난을 따로 두지 않고 내용에 포함시키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첫권보다 알차고 짜임새있게 만들었다. 각 책에는 참고서적·논문의 목록과 관련사진 등

역사 속의 時代意味 천착 연속講義 체계적으로 엮어

한길역사강좌

한길사/A5 변형/각권 190면 내외/각권 2400원

「한길역사강좌」는 「한길歷史紀行」과 표리를 이루는 프로그램이다.

독자와 저자가 지속적으로 만나 함께 공부하고,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 현장학습과 이론학습의 통합을 꾀하는 뜻있는 기획이다.

도 담고있다.

1권 「한국민족운동의 이념과 역사」는 7편의 글로 이루어졌는데, 민족이란 무엇이며 한국의 민족운동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다루었다. 또 민족운동으로서의 민족문화운동이 어떻게 전개됐으며(박태순), 해방 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회과학의 성격이 한국의 민족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한 김진균교수의 글이 있다. 우리나라와 민족운동에 대한 기본시각을 갖게한다. 한편 2권은 성리학과 실학을 중심으로 한 조선조 사회사상에 관한 글들과 민중문화·민중신앙에 대한 사회사상적 인식들을 담고있다.

3권 「한국현대사와 역사의식」은 3·1운동, 8·15해방, 6·25라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본 현대사와, 식민지시대 이후의 한국문학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다. 또 「한국의 기층문화」를 다룬 4권은 한국인의 자연관·가옥·음식·복식문화를 그림까지 곁들여 설명한다. 현재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문화를 다룬 것이어서 흥미롭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5권 「한국의 사회경제사」엔 조선시대의 농업사 및 사회경제사와 1876년 개항으로 인한 사회경제의 변화를 살펴본 글이 실려있다. 또한 가장 최근(6월)에 나온 제9권은 가까이서 늘 정치적·경제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서방선진국들과 함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日本을 파헤쳐왔다.

이외에 6권 한국현대문학사상사(임 현영), 7권 한국사상사(이 이화) 8권 한국현대사(송건호), 10권 한국근대민족운동사(이 이화)가 현재 제작중이다.

한편 한길사는 지난 5월부터 사회과학강좌도 열고있는데, 보다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이 또한 책으로 별 계획이다. 이것은 한길역사강좌가 개설적이고 대중적이어서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깊이있는 사회과학적 인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문화활동은 기록되어야 하며 무형의 지식을 다듬어 논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책」이라고 한길사 金彥鎬사장은 얘기한다.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위한 모임을 열고 프로그램을 다변화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책을 엮어 널리 보급해야하는 과제가 한 출판인의 것으로만 그치지않고 더많은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또 이를 기록하여 널리 보급하는 일들이 보다 많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진행자들·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